스물두번째 이야기

형제는 용감했다.

2016년 상반기 FTS를 마친 15명의 예비인도자 중에 눈에 띄는 두 형제가 있다. 2014년부터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간 되는대로 닥치는 대로 수강하여 현재 FTS과정까지 8과목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각각 양재와 서빙고에서 FA로 섬긴다고 한다. BEE에는 부부나 형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꽤 있지만, 이같이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는 형제는 없었다. 게다가 이들의 아내들도 세미나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 듣는다고 한다. 이쯤 되니 말씀사역에 용감히 뛰어든 이 형제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인 장원규(형), 장선규(동생) 형제를 소개한다.

토요 기도모임에 참석한 후, 한의원으로 바로 출근하는 탓에 두 사람을 잘 모르는 BEE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 싶었다. 이들은 왜 BEE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형: 토요 기도모임에 처음에는 투명인간처럼 있다 가고 싶었는데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일어서라 하셔서… 셋째 주에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하)

갈라디아서 할 때 깜짝 놀란 게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구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껏 쭉 오게 된 것 같아요. 말씀 사역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지만 혼자 찾아볼 만한 부지런함은 없었는데 억지로 매는 십자가에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들고 온 것 같아요. 은혜 따라 온 거죠.

동생: 저는 이 전에는 이런 인터뷰라던가 누군가와 성경 말씀을 나눈다거나 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학 시절, 군의관 시절에,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도 내 신앙을 찾기에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BEE 세미나 하면서 신앙이 정리되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생겼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아내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변하는 걸 느끼니까 계속 하고 싶더라구요. 사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인도하는 것을 성격상 힘들어하는데 주어지니까 따라가는 거에요.

함께 FTS를 마친 한 집사는 형제가 우애도 좋고 잘 자랐다고, 부모님께서 정말 잘 키우셨다는 얘기를 했다. 모든 부모들의 숙제는 자녀의 양육일 것이다. 아들들을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키워낸 부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이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형: 두 분 다 헌신적이셨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셨고 아버지는 아직도 없으신데, 어머니의 신앙을 저희들이 물려받았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한의대 가서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바탕에는 어머님의 기도가 깔려있었죠.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막내가 2살이에요. 주말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애들 잘 때 나오고 잘 때 들어갈 때가 많아서 시간만 나면 놀아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아이들의 울타리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내가 준비되어 있나? 재테크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요. 이번에 구약 통독하면서 무게중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동생: 어머니는 헌신적이시면서 엄격하시고, 어떻게 보면 항상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때 반듯한 기준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글쎄요. 아이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시간만 나면 노력을 많이 해요. 아빠들이 나중에 쓸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에요. 9살 아들 하나에 6살 쌍둥이 딸 둘이 있지요

삼수 끝에 한의대를 간 동생과, 공학도에서 뒤늦게 한의대로 인생의 키를 전환한 형, 두 형제가 같은 길을 선택한 이유도 남달랐을 듯 했다. 현재 각각 CMN에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동생: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나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일 하기에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역을 나가보면 제일 필요로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안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해준다는 높아진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형: 저는 그게 숙제인데 BEE도 선교 단체잖아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이 상황 안에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보여주셨던 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땅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루트가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더 나가야 되겠지요. 현재는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만큼만, 한 달에 한번 주일 오후에 섬기고 있어요.

형제가 한의사에, 겉으로 보기에도 멀끔해서 지금까지 별 탈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외적으로 전쟁 한번 치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들의 삶에도 굴곡이 과연 있었을까?

형: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 신앙은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전공을 바꾸려고 공부하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다가 요 6:27 말씀과 부딪쳤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가 지금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 때부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해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죠. 캠퍼스 미션을 10년 넘게 했고, 아내도 거기서 만났는데, 신앙이 사역에 치우치면 삶의 다른 영역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가족 모두 온누리교회로 오기로 결정했고, 말씀 사역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BEE를 만났죠.

동생: 저는 어렸을 때 내성적이라서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었어요. 교회 가도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빠져 나오고. 대학교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어요. 교회 잘 안 나가고 술도 많이 마시고. 형이 혼내지는 않고 붙들고 기도해주더라구요. 수련의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되게 많았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문제야 이런 식이었죠. 군의관으로 복무 할 때도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둘째를 가졌었는데 만삭에서 마지막 심장소리 확인하고 5일 있다 갔는데 사산이 된 거에요. 그때 저도 아내도 너무

힘들었죠. 제가 군의관 1년 마치고 이동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동시에 여러 일이 터지니까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에요. 그때 형이랑 형수님이랑 와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때부터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좀 더 편한 자리로 이동되었고 아내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아들도 세례를 받고...

1년 정도는 계속 회복이 안되었어요. 큰애가 잘못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인 거에요. 되게 감사한 게 데려가신 아이도 다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그 계기로 저희 가족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부산에 있는 2년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좀더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두 사람에게 지금 살아온 길을 배경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부탁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경책에 쓰인 정의가 아니라, 삶을 통해 보이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동생: 등을 돌리고 있다가 제가 힘들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 계셨고 저를 만나주셨지요. 아직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믿음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생활이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 전의 삶을 보면 별일 아닌 일에 혼자 힘들어 하고 분노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게 주어진 일이 즐겁고 기대도 되요.

형: 저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을 좋아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삶을 돌아볼 때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었더라구요.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지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 궁금해졌다. 만나면 서로 아옹다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니지만 갈등과 경쟁의 요소도 약간 있을 법한 일반적인 형제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지. 형에게 동생은, 동생에게 형은 어떤 사람일까?

동생: 저는 이제 형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편이에요. 친구 같기도 하고. 제가 뭐가 필요할 때 가장 친밀하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결정할 때 상의할 수 있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 같은 존재죠.

형: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직업이 같은데다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신앙 안에 있어서 지금은 서로 의지가 되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닌데 대견했다. 이런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리라.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이 형제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과연 어떨까? 특별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까?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동생: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예전의 저를 되짚어보면 신앙생활에 한발만 담그고,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선뜻 나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어지면 하게 되고, 실제로도 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저도 아내도 한의사니까,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형: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에요. 예전에는 거창한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열리고 인도해주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인도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겠지요. 내가 간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더라구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특히 요즘은 거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거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동행의 열매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의무겠지요.

인터뷰: 한숙영, 최승호/ 인터뷰 정리: 조정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형 장원규

직업은 한의사. 내과의사인 아내와의 사이에 딸 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CMN에서 안산M센터를 섬기고 있고, 하반기 양재 로마서 FA를 할 예정이다.

동생 장선규

직업은 한의사. 역시 한의사인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쌍둥이 딸 둘을 두고 있다. CMN에서 작년까지는 농어촌교회를 섬기다가 올해부터 창신동의 고려인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이번 학기는 서빙고에서 갈라디아서 FA로 섬기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 베트남 2군데에서 졸업식이 그곳 총회장도 참석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 올해 4월부터 BEE World 총재직을 맡고 계신 David Semmelbeck 선교사님이 한국을 잠깐 방문하여 토요기도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 질병으로 잠시 귀국했던 김소망선교사님이 치료 잘 받고 사역지로 복귀하셨습니다.
- OBC 이후로 문이 닫혀 있었던 온비아가 수원.부천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개강하였습니다.
- 서빙고.양재 온비아는 폐강되는 반 없이 모든 세미나가 개강되었습니다.
- 네팔과 베트남에서 많은 새로운 헌신자와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